

시가 가르치니 성적이 ‘쑥쑥’

웅진씽크빅 ‘AI 학습코칭’ 효과 확인
카이스트서 학습효과 세계 최초 입증
문제풀이 속도 늘고 정답률 10.5%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인공지능(AI)의 학습코칭 효과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은 KAIST 김민기 교수팀이 지난해 2월 출시한 ‘웅진씽크빅 AI학습코칭’의 AI 학습 효과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AI를 학습에 적용해 효과를 수치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씽크빅이 선보인 AI학습코칭은 회원들의 학습패턴을 AI로 분석해 고쳐야 할 학습 습관 리포트로 정리하고, 지도 교사를 통해 학생이 자연스럽게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서비스다.

김 교수팀의 실험은 인공지능 학습의 정량적 효과 분석을 목표로 진행됐다. 웅진씽크빅 AI학습코칭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 학습량과 학습효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AI학습코칭을 경험한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16문제를 더 풀었으며, 10.5%포인트 향상된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AI학습코칭 데이터로 교사가 직접 개별 학생을 지도할 경우 24문제 가량의 학습량 증가와 15.7% 포인트의 정답률 향상 결과가 나왔다.

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AI학습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실



웅진씽크빅 회원이 북패드를 통해 스마트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웅진씽크빅

제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AI를 활용한 교육 시장의 확대는 물론, 더욱 다양한 분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AI학습코칭은 천편일률적인 기존 학습 프로그램과 달리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든 개별 학습 최적화 플랫폼’이라며 “웅진씽크빅 선생님들은 AI학습코칭 리포트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맞춤형 가이드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 습관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웅진씽크빅 AI학습코칭은 미국 스탠포드대 출신의 교육학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웅진북클럽 회원들을 대상으로 누적된 111억 건의 빅데이터를 연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소개됐다.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찍

는 행동 ▲아는 문제만 풀려고 하는 행동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 뒤에 문제들을 풀고 앉고 건너뛰는 행동 ▲틀린 문제를 다시 풀지 않고 넘어가는 행동 등 고쳐야 할 학습 습관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한다.

또 학습 중 발생한 습관은 AI학습코칭 리포트로 만들어져 담당 교사에게 전송된다. 이를 기반으로 방문 학습 시 구체적으로 어떤 문항에서 행동들을 보였는지 데이터를 함께 확인하면서 학생이 자연스럽게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돕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관리와 맞춤 솔루션 제공으로 더 체계적인 학습관리가 가능하다. AI학습코칭은 웅진씽크빅 북패드를 통해 웅진씽크빅 초등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스마트 학습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업 43% “하반기 인턴 채용”

채용 계획 전년 비 7.7% ↑
10곳 중 6곳 ‘정규직 전환형’
기간제 체험형 선발 소폭 ↓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인턴 채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검증된 실전형 인재’ 채용 경향이 커지면서 인턴 채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10일 사람이 기업 413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2.4%가 인턴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대비 7.7% 상승한 수치다.

이들 기업의 인턴 채용 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유지’(40.6%)하거나 ‘확대’(37.1%)한다는 곳이 많았으며, ‘축소’하는 기업은 5.7%에 그쳤다.

인턴 채용 형태는 ‘정규직 전환형’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전환/체험형 인턴 모두’(23.4%) 선발한다는 기업도 많았다. ‘기간제 체험형’만 뽑는다는 응답은 10.3%로 전년보다 2.9% 낮아졌다. 이는 인턴 근무 후 검증된 인재를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경우

가 증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턴사원의 월급은 주 40시간, 세전 기준 평균 191만원이었으며, 인턴 근무 기간은 평균 4개월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취업 전략 중 하나로 인턴 입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도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턴 채용 기업의 44%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다고 답했고, ‘우수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한다’(34.3%)는 기업도 많다. 14.3%는 ‘인턴을 통해서만 신입을 선발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기업은 5.1%, ‘정규직 전환과 관계가 없다’는 기업은 2.3%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인턴 채용시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아르바이트 등 실무 경험’(32.6%), ‘전공’(23.4%), ‘자격증’(8%), ‘OA능력’(6.3%) 등의 순으로 꼽았다. 면접에서는 ‘성실성’(29.1%), ‘직무 적합성’(28.6%), ‘업무경험’(12.6%), ‘열정과 도전정신’(10.9%)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장보고-1급 잠수함. /방위사업청

서울 매입형유치원 공모에 39곳 신청... 경쟁률 4대 1

이달 중 10개 내외 유치원 선정
내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개원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2019년도 제2기 ‘매입형유치원’ 공모에 39개 사립유치원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10개 유치원을 선정해 공립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립전환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하고,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입형유치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매입형유치원 공모에는 자가소유, 단독건물, 6학급 이상 기 설립·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이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이 없는 자치구,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서민거주 밀집지역 등에서 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을 선정하고, 응모결과와 예산여건 등을 고려해 10개원 내외의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값으로 산정되며, 대상 유치원 선정 이후에는 교육부 매입형유치원 선정 자문위원회, 재정투자심사 등을 통과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립유치원 폐원 및 매입계약, 공립유치원 설립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공모를 통해 매입형유치원 1개원을 선정해 올해 3월 공립 서울구암유치원을 개원했다. 지난 1월 공모에서는 9개원을 선정해 오는 9월 4개원, 2020년 3월 5개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돼 설립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10개원은 2020년 3월 매입형 공립유치원으로 설립된다.

/한용수 기자

광운대 한국번역산업연구센터

‘번역물 품질관리 위탁기관’으로 계약 체결

광운대학교는 교내 한국번역산업연구센터(소장 이일재)가 지난 5일 ‘한국어-영어 번역 말뭉치 데이터 구축’을 위한 20억원 규모의 번역과제를 수주한 (주)솔트룩스 파트너스(대표 신석환)와 1억원 규모의 ‘번역물 품질관리 위탁기관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기관인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

업’ 10과제 중 하나다. 인문분야에서 1억 원 규모의 정부 과제 관련 위탁 업무 수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데이터 구축 과제는 다양한 분야의 140만 한영번역 문장을 약 6개월 기간에 완성해 납품하는 것으로, 약 300쪽의 책 400권 분량에 해당한다.

계약에 따라 한국번역산업연구센터는 어문학 계열 석사/박사급 검증 연구원 7명을 투입해 수시로 가공되는 번역물의 일정한 분량을 샘플로 추출해 품



광운대 한국번역산업연구센터(오른쪽)와 (주)솔트룩스 파트너스(대표 신석환)가 1억원 규모의 번역물 품질관리 위탁기관 계약을 체결했다. /광운대학교

질검사와 통계검증을 통해 전체 번역 품질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게 된다. /한용수 기자

‘장보고-1급 잠수함’ 나대용함, 해군에 인도

통합전투체계 등 성능 대폭 향상

조선시대 조선기술자이자 수군장수였던 나대용 제독의 이름을 딴 나대용함이 향상된 성능으로 부상했다.

방위사업청은 1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1급(209급) 잠수함 ‘나대용함’을 성능 개량해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나대용함은 장보고-1급 8번함으로 건조돼 2000년에 실전 배치됐다. 장보고-1급 성능개량은 지난 2월 인도된 최무선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나대용함은 2017년 6월부터 통합전

투체계와 공격 잠망경 교체, 소나(SONAR·음파탐지기) 추가 등 성능개량에 착수해 최근 인수시운전을 완료하고 해군에 인도할 준비를 마쳤다.

방사청에 따르면 개량된 나대용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동급 잠수함보다 동시 표적해석 및 추적, 수중 음향탐지, 수상 표적탐지 등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특히 통합전투체계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방산기술 역량 향상 및 유사시 군의 작전 수행능력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중앙대 국내 최초 ‘스마트에너지시티 허브’ 구축

중앙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에너지시티 허브 구축에 나선다.

10일 중앙대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데이터 기반 지속가능한 스마트에너지 시티 실증 사업에 선정돼 세종시 5-1블록에 스마트 소사이어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들이 협업하며, 스마

트에너지시티 분야 전문가인 중앙대 박세현 교수(전자전기공학부)가 총괄 책임을 맡는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대는 8월 국내 유일의 에너지데이터 전문센터인 ‘AI 기반 에너지 공유 데이터 센터’를 설립 예정이며, 세종시 통합관제 플랫폼과 연계함으로써 세종시를 국내 최초 ‘AI 기반 지속 가능한 스마트에너지 시티’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